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발표■

감염관리 수가체계 개선 ... 간호사 인력기준 강화

앞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인력기준 상향, 감염관리활동 수가 반영, 노후 장비 정비 등의 대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과 관련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해 1월 23일 발표했다.

의료감염 예방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추후 실태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사건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신생아중환자실 내 감염관리를 개선하고, 초기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지난해 12월 18~28일 실시된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인불명 다수사망 보고체계 개선= 원인불명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양한 경로로 인지된 원인불명 질환 의심사체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원인불명 질환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재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개선=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해 감염관리활동을 지원한다. 의료감염 감시체계(KONIS)에 소아·청소년 중환자실을 포함시키고, 혈류감염 등 치명적 감염에 대한 예방활동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도구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 감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인다.

무균술, 안전한 주사처치, 의료기구 소독·멸균 방법 등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한다. 잘못된 주사처치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평가시스템을 개발한다. '감염예방관리'를 개편해 주가지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한다. 필수 소모품 사용 확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을 검토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진료환경 개선=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연 1회 정례화해 실시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장비를 정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비 관련 등록정보를 최신화하고, 노후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가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경력, 감염교육 강화 등 세부적인 인력기준을 마련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고,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기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아·신생아 주사제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기준 개선=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인증기준에 신생아중환자실에 특화된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수시조사를 활성화한다.

△국가 환자안전체계 구축=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년)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환자안전법에 적신호 사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낙상·욕창 등 간호안전활동, 수술실 감염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한다.

주혜진 기자 hjjo@koreanurse.or.kr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법률안 발의

김승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1월 11일 대표발의했다.

김승희 국회의원은 법률 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간호인력난이 발생한 원인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 수준 등으로 인해 근무연수가 짧고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점, 경력단절 후 업무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국민의 다양한 간호서비스 요구에 제도적으로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인력을 양성해 보건·의료기관이 원활히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5년마다 '간호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간호인력의 수급과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제도 마련, 표준 보수지급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인력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공급 및 수요 변화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간호인력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인력의 '표준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성 기자 kschung@

국립소록도병원 100년사 발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형철)은 개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소록도 100년사 집필·편찬 사업이 마무리돼 '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소록도 100년사에는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다. 특히 한센병 치료와 한센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병원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불행한 과거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기술돼 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잘못과 한계를 직시하고, 성찰을 통해 미래에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소록도 100년사는 '역사편'과 '의료편' 두 권으로 구성됐으며, '사진집'을 별도로 발간했다. '역사편'은 기존에 발간된 소록도 80년사를 토대로 하되 한센인의 시각에서 과거를 재조명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예로 1945년 광복과 함께 발생한 한센인 84명 학살사건의 경우,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병원 직원들에 의한 집단학살'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

'의료편'은 국제 한센병 정책



의 흐름, 병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와 제도의 변화, 치료약의 발전 과정 등을 서술하고 있다. 의료사를 일반사에서 독립해 기술했으며, 이는 소록도 병원이 한센인 집단격리시설에서 의료기관으로 그 성격이 전환됐음을 상징한다.

'사진집'에는 한센인들이 병고와 가난 속에서도 교육과 종교, 자치활동을 통해 소록도에 생계를 터전을 만들고 삶의 주체로서 살아낸 모습을 담았다.

박형철 소록도병원장은 "100년사 발간과 더불어 앞으로도 소록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노력을 통해 소록도의 가치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간호사 비하 발언한 최남수 YTN 사장

대한간호협회에 사과문 보내와

간호사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남수 YTN 사장이 대한간호협회에 사과문을 1월 17일 보내줬다.

대한간호협회는 최남수 YTN 사장이 머니투데이방송(MTN) 보도본부장 시절, 이미 30여년 전 명칭이 변경된 간호사를 '간호원'으로 호칭하며 간호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비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1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최남수 사장의 발언은 '미디어오늘'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

최남수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한 매체가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동안의 일부 트윗을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면서 "과거 제 개인적인 SNS 활동이 대한간호협회와 회원들에게 또 전국 여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SNS는 물론 다양한 소통과정에 있어서 이번 일을 큰 교훈으로 삼겠다"며 "국민건강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계신 대한간호협회와 회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규성 기자 kschung@

부모 모두 비판이면 자녀 비판율 4.6배 높아

부모가 모두 비판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 비판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엄마한 비판인 경우가 아빠만 비판인 경우보다 자녀 비판율이 더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비판백서'를 발간하며 부모 비판 여부에 따른 자녀의 비판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는 2015~2016년 기준 일반건강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 자료를 사용했다. 분석결과 부모 모두 비판인 경우

자녀 비판율은 14.44%로 부모 모두 비판이 아닌 경우(3.16%)보다 약 4.6배 높았다. 엄마한 비판인 경우 자녀 비판율은 8.32%로 아빠만 비판인 경우(6.63%)보다 약 1.3배 높았다.

반면 부모 모두 저체중인 경우 자녀 비판율은 0%로 나타났다. 엄마한 저체중인 경우는 1.90%, 아빠만 저체중인 경우는 2.40%였다. 부모 모두 저체중이 아닌 경우는 6.50%였다.

부모 비판에 따른 자녀 비판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여아가 높았으나, 부모 모두 고도비만이거나 아빠만 저체중인 경우에는 남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영유아의 식사속도가 빠르거나 TV 시청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서 부모 모두 비판일 때 자녀 비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17 비판백서는 건보공단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 →건강프로그램 →비판개선프로그램 →비판자료실 게시판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주혜진 기자 hjjo@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만든다

국가 차원 첫 건강보험 전략 수립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실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계획(안) 마련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계 각층과의 소통을 시작기로 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2016년 개정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발전했고, 2000년과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이행했다. 그러나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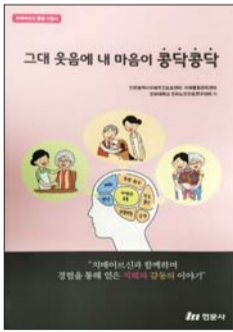
복지부는 이번엔 수립될 종합계획이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노인 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제도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제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주혜진 기자 hjjo@

치매어르신 돌봄 지침서

그대 웃음에 내 마음이 콩닥콩닥



인천 치매주간보호·치매통합관리센터 간호사 등 돌봄자 경험사례 중심

치매어르신을 직접 돌본 경험자들의 사례를 토대로 만든 '치매어르신 돌봄 지침서-그대 웃음에 내 마음이 콩닥콩닥'이 출간됐다. 인천시 치매주간보호센터 12곳과 치매통합관리센터 6곳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비롯한 돌봄자들이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글로 옮겼다. 센터 팀장들과 인하대 간호학과 김희순·임지영 교수가 수집하고 분류했다.

치매어르신을 위한 책으로 꾸며진 이 책은 '치매어르신의 심리상태와 치매어르신을 대할 때 돌봄자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무엇이 잘못되어 우리 어르신은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치매어르신의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인 정신행동증상을 뇌 구조 및 기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치매노인, 어떻게 모셔야 할까? 실전을 통한 지혜의 힘! 치매노인의 일상 생활관리(영양, 위생, 낙상 등) 및 정신행동증상관리(망상, 환각, 우울, 공격성 등)에 대한 도움말을 실제 사례별로 제시하고 있다.

△동거동락: 어르신, 가족, 우리가 함께한 의미는? 치매주간보호·치매통합관리센터 근무자들과 가족들의 감동적인 수기가 수록됐다. 대표저자인 이영휘 센터장은 책 머리말을 통해 "센터 팀장님들이 직원들의 경험을 책으로 발간해보고 싶다고 제안했고, 그 귀한 경험과 내용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다"면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한 돌봄 방법에 대한 팁을 이용해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삶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문서 / 360쪽 / 1만2000원)

최수정 기자 sjchoi@

호주로 간 수술실 간호사의 최중우돌 성장기

정인희 저 '간호사를 부탁해'



호주로 간 수술실 간호사의 분투기이자 '보통의 간호사'로서 들려주는 서바이벌 가이드.

정인희 간호사가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투명하게 솔직하게 풀어낸 저서 '간호사를 부탁해'를 발간했다.

'한국에서 온 성질 좀 있는 일 좀 하는 간호사'로 통하는 그는 10년의 호주 간호사 생활 속에서 터득한 능력 있는 간호사가 되는 법, 나를 지키며 살아가는 법 등을 유쾌하게 풀어냈다.

저자는 "무조건 착해야 한다는 착각은 그만두라"며 "일은 당연히 프로답게 해야 하지만 부당할 건 항의하고,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하고, 인간관계에 너무 목매지 말고, 쓸데없이 병원 걱정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이 책을 쓴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할 일을 하는 수많은 간호사 중 한 명인 당신도 이미 충분히 당신만의 빛깔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면서 "누가 뭐라고 하건 간호사인 당신은, 나는, 우리는 이미 훌륭하고 특별하다"고 말한다.

책은 총 4개 파트로 구성돼 있다. △개고성 혹은 진정한 배움: 한국 종합병원에서의 3년 1개월 △여기는 좀 다를까?: 호주에서의 간호사 생활 △병원 일기: All OR Nothing △종합병원 생활: 멘탈 털릴 방지도 가이드. 정인희 간호사는 한림대를 졸업하고 2003년 대학병원에 입사했다. 3년 차 시절, 인생의 새 읍성을 탐색하던 끝에 호주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2006년 호주로 가 외국인 간호사를 위한 면허전환프로그램 과정을 마쳤다. 현재 서호주 주립병원인 로열 퍼스 병원에서 수술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단지 취업이 잘될 것 같아 선택한 길이 지금은 수술실 평간호사로 정년퇴직하는 것이 꿈일 만큼 좋아졌다고 말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힘쓰는 한편 블로그(blog.naver.com/sprrn)를 통해 일상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있다. (원더박스 / 312쪽 / 1만5000원)

주혜진 기자 hjjo@

간호사 부부의 해외취업 도전기

장수향 저 '뉴질랜드 간호사 되기'



한국 간호사 부부가 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싶다는 꿈에 도전해 뉴질랜드 간호사가 되어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책이 나왔다.

'뉴질랜드 간호사 되기'의 저자 장수향 간호사는 자신과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있다. 뉴질랜드 여행을 선택했고, 두 사람 모두 뉴질랜드 간호사가 돼 일하고 있다. 장수향 간호사는 현재 오클랜드지역 노스쇼어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책에는 뉴질랜드 간호사가 되기까지 장수향 간호사가 남편과 함께한 우여곡절과 생생한 경험에서 우려나온 다양한 정보들이 사진과 함께 실렸다. △뉴질랜드 간호사 되기 △취업부터 정착까지 △뉴질랜드 병원에서의 생활 △뉴질랜드에서의 일상 △영어공부 노하우 등으로 구성됐다.

장수향 간호사는 "뉴질랜드 간호사가 되어 첫 출근하던 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두려울 것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설명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며,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포널스 / 352쪽 / 1만8000원)

최수정 기자 sjchoi@

간호사가 들려주는 쿠바 여행기

김소영 저 '쿠바, 삶의 여유를 배우다'



자살을 모르는 나라.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라. 음악과 춤을 즐기며 사는 나라. 남미의 마지막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Cuba)'다.

김소영 간호사가 쿠바 여행을 담은 책 '쿠바, 삶의 여유를 배우다'를 발간했다.

책은 '사회주의 국가 쿠바의 모습들' '쿠바 사람들은 행복하고, 자살을 모르는 이유는?' '개방된 쿠바는 현재 많은 협동조합들?' '쿠바 역사 알아보기' '쿠바인의 삶의 태도' 등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글과 함께 쿠바 현지 모습도 보다 생생히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사진이 실려 있다. 마지막에는 기본 스페인어 정보가 수록돼 있다. 김소영 간호사는 서문에서 "쿠바 여행은 자유롭게 즐기는 삶이 더욱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김소영 간호사는 대학병원에서 25년간 근무했으며, 요양보호사 교육강사로 활동했다. 앞서 호주에서의 생활기를 담은 '오지랖 아줌마의 호주생활 누리기'를 펴낸 바 있다.

(맑은샘 / 248쪽 / 1만3000원)

주혜진 기자 hjjo@